

# 금호타이어 해고직원 공업용제 마셔

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돼 비관 ... 위 세척으로 생명에는 지장 없어

금호타이어에서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한 직원이 공업용 용제를 마시고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.

4월10일 오후 4시 경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노조원 김모씨가 공업용 제를 마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.

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은 후 조선대병원에 옮겨졌으나 용제가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은 김씨가 직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회사측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
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12>